다산포럼

금강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

'가버린 것을 좇을 수 없고 장차 올 것을 기약하지 못한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다산 선생의 어록에 나오는 구절이다. 세상살이에 이보다 적확한 표현이 있을까 싶어 가슴에 품고 산다. 내게도, 때때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즐겨 되뇌고 들려주는 구절이다.

며칠 전 친구처럼 지내는 교수 한 분이 찾아왔다. 십 삼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서 다른 일을 찾아볼까 한다고 했다. 학생들을 보면 말투와 행동에서 선입견이 먼저 생겨나고, 기대감보다 실망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즐겁지가 않다는 것이다. 나는 이번에도 다산 선생의 혜안을 들려주었다.

"현재가 즐겁지가 않다면 그 어느 곳에서도 즐거움은 없습니다. 하는 일을 바꾼다한들 새로움은 잠시뿐입니다. 그곳에서 또다시 기대감은 실망으로 변할 겁니다. 다른 곳을 향한 시선을 거두어 지금, 여기를 주목하세요. 즐거움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선생의 말씀을 지금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 아닐까 싶다.

나는 백장 스님의 법문도 들려주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겠다는 말로 유명한 백장스님. 짧은 세 줄 법문이 있다.

첫 번째 구절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다. 학생들 중에서 공부 잘하고, 고분고분 말 잘 듣고, 마음에 드는 학생을 선택하는 순간 나머지 다른 학생들은 나와 갈등구조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한 쪽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모든 개별의 학생들이 세세하게 눈에 들어왔을 거라는 말이다. 분별은 언제나 갈등을 자초한다.

두 번째 구절은 그 버릴 마저 버리는 것이다. 각각에 대한 집착함을 버리면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즐겁다는 것이다. 마음이 달라지면 학생들과 만남이 고달픔에서 기다림으로 바뀌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세 번째 구절은 통찰과 자비심 가득한 마음이다. 지금 지도하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은 귀한 인연으로 만났다. 얼마나 소중한 만남인가.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그들에게 무엇을 전할 것인가. 그들 삶을 넓고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늘 그런 마음으로 학생들을 만난다면 그들 또한 큰 동량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것이야 말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최고의 행복 아니겠는가.

지난 겨울에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찾아왔다. 소나무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각기 전공 분야는 달랐다. 경복궁을 복원하고 있는 유명한 목수, 소나무를 잘 그리는 한국화가, 작곡가, 만화가, 차문화 연구가 들이었다.

"여기 소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여기 모이신 분들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40명이 한 그루의 소나무를 보지만 이미 그 소나무는 한 그루가 아니었다. 40그루의 소나무였다. 모두들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자신의 눈으로 소나무를 보기 때문이다.

결국 사람들은 소나무의 본래 면목은 보지 못하고 자기만의 시각을 고집한 탓에 또 다른 가능성을 닫아버린 것이다. 그것을 일러 어리석음이라한다. 어디 소나무뿐이겠는가.

우리는 늘 어떤 문제가 눈앞에 있을 때 과거의 경험을 떠올려서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무게를 두고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 잘못된 판단은 그릇된 결과를 낳아 아쉬움으로 가슴을 치게 한다.

하여, 매순간 깨어있음이 나의 삶을 행복하고, 평화롭고, 자유롭게 함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깨어있음은 반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 노력을 일러 수행이라 한다. 그 속에 현재를 사는 가장 큰 즐거움이 있는 것이다.

〈미황사 주지 스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연이은 태풍 피해, 그래도 주저앉을 순 없다

초강력 태풍 '산바'가 한반도를 강타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산바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경남 남해군 상주면 해안에 상륙하면서 초속 30m 이상의 강풍과 집중호우를 뿌려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에 생채기를 내고 있다.

전남지역은 태풍에서 벗어나 일단 큰 고비를 넘겼지만 벼와 과수 등 농작물과 수산 양식장 등지에 대한 상황이 확인되면 피해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목포와 해남 등 전남 서부권은 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태풍의 길목에 인접한 여수 등 동부권에는 농경지 및 가옥 침수 등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여수에서는 강한 비바람에 만조까지 겹치면서 침수피해가 속출했으며, 강풍으로 간판이 날아가고 가로수와 전신주가 뽑히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또 이날 오후 6시 현재 전남에서만 6만1000호 가구의 전기 공급이 일시적으로 끊겼으나 모두 복구됐다고 한다.

불과 20여일만에 3개의 태풍이 연달아 몰아닥친 전남지역으로선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닐 수 없다. '볼라벤'과 '덴빈'으로 출하를 앞둔 수산 양식장과 과수단지, 시설 하우스 등이 초토화된 마당에 또다시 산바가 덮쳤으니 농어민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심정이다. "이제 남은 것도 건질 것도 없다"는 농어민들의 하소연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군·관·민을 총동원하는 등 복구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가옥 침수로 인해 이재민이 발생할 경우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산사태 및 제방·방파제 유실 등의 점검을 통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또, 재해 보상금과 지원금을 대폭 확대해 현실에 맞는 복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전남도가 최근 마련한 항구적 재해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결국 실패로 끝난 광주시 '3D 사업' 투자

광주시가 추진해온 3D컨버팅 분야 한미합작투자사업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미국 측 회사(K2AM)의 기술력이 애초 계약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탓이다.

광주시는 1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D컨버팅사업 중단 ▲위약벌(penalty) 920만 달러 청구를 통한 기존 투자금 환수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미국 LA현지에서 진행된 최종 테스트에서 시간당 5초 분량의 3D영상물을 만들어 내면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기로 했지만, 시간당 2.93초 분량의 영상물을 만들어 내는데 그친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K2AM 측에 대해 위약벌 청구 등 투자금 환수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근거는 최종계약서에 규정한 '지급조건의 불충족에 대한 위약벌(칙) 조항'이라고 한다.

광주시는 투자금 650만 달러 환수를 위해 1차로 K2AM측에 위약벌 920만 달러를 청구키로 했으며, 거부시 법적 소송과 함께 형사고발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부적으로 이번 사업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광주시가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미국 측 회사에 대해 위약금 청구권을 확보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위약벌 920만 달러를 받아낼 수 있을지,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할지 등은 여전히 미지수다. K2AM측의 열악한 재정상태나 국제법상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시가 추진하는 조치들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시의회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광주시가 3D컨버팅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정보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분명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위약벌금을 받아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게 된다. 시는 이번 실패를 계기로 모든 정책 시행에 앞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우선해야 할 것이다.

NGO 칼럼

석탄화력은 공동체와 자연환경 파괴자

박상은

"잘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유치만 하면 특별지원금 1000억 원을 집집이 나눠주고, 일자리 창출과 세수증대 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한해 5000여억원 남짓한 예산의 지방 소도시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큰 천억원, 백억원이라는 단위가 회자한다. 너무나 큰 기회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큰 돈과 기회를 마다하고 머리띠를 두르고 나선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 땡볕 아스팔트에 앉아 "절대 안돼!"라고 외치고, 군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군의원은 20여일 넘게 단식농성을 하고, 삭발까지 해가며 반대하고 나서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 지금 고흥과 해남, 여수에서 벌어지고 있다.

왜 잘살게 해준다는데, 지역경제를 발전시켜 준다는데 반대하는 것인가? 반대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고 명확하다. 유치과정에서 발전사업자 등이 보여주고 있는 지역공동체 파괴의 과정을 낱낱이 보고, 살아가고 있는 땅과 바다의 가능성과 '녹색잠재력'을 확신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다름 아닌 고흥과 해남, 여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유치과정에서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고흥, 해남, 여수는 지난해 말부터 9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문제로 찬·반 갈등과 혼란에 빠져있다. 제주 강정마을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 고흥, 해남, 여수에서 재현되는듯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걱정스럽다.

석탄화력 발전업자들은 '1000억원 세대별 분배', '지역경제 발전', '친환경' 등의 이름을 내세우며, 지역을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들의 주장이 진실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역의 공동체가 겪고 있는 찬·반 갈등과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명분만 내세우며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발전이라는 명분은 더 이상 신뢰를 잃었다. 또한 갈등과 혼란 그리고 파괴를 통한 유치방식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보다 저해할 것이 명확하다. 더구나 고흥과 해남, 여수에 대한 발전업자들의 공동체 파괴행위는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다. 1980년대 이후 수차례 거쳐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1년 핵 발전소, 2012년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논쟁으로 2년 연속 찬·반 갈등이 반복돼 지역공동체는 그야말로 멘붕(?)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동체의 파괴를 방관하고 있는 도시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도 되짚어 봐야 한다.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는 대부분 광주를 비롯한 도시에서 소비된다. 하지만 고지서에 찍힌 전기요금에만 관심이 있을 뿐, 얼마나 지역의 공동체와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너무나 무책임한 모습이다. 고흥, 해남, 여수의 석탄화력발전 유치는 각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광주·전남, 전국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도시민들 또한 이해당사자로써 도시와 지역의 상생발전과 윤리적 소비를 위해서 파괴적인 석탄화력 유치방식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함께 행동해야 한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건설의향서 마감 결과에 따르면, 고흥 4000MW(포스코건설), 해남 5000MW(MPC), 여수 2000MW(한양 1000MW+동서발전 1000MW)의 건설계획이 제출되었으며, 전국적으로 20개 지역에 50GW 규모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이 제출됐다.

석탄화력발전은 환경파괴에서 '공해 백화점'이라 불릴 만큼 많은 공해물질을 배출한다. 1000MW 기준으로 연간 자동차 150만대 분량의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초당 50~60여t의 열 폐수가 바다로 흘러들어 반경 20km이상의 바다수온에 1도 이상 영향을 주며, 연간 40여만t의 석탄재는 연안 등에 매립된다. 또한, 굴뚝으로 황과 질소산화물 대기오염 물질과 수은, 크롬 등 중금속 오염으로 암과 폐질환 등 건강을 위협하며, 송전탑의 전자파, 재산권 제한, 경관훼손 등 수많은 문제를 양산한다.

고흥, 해남, 여수의 신규 석탄화력은 공동체와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파괴는 곧 폭력이며, 폭력은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폭력을 방관하는 것은 폭력의 또 다른 모습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는 21일 오전 10시 고흥군민회관에서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고흥군민 총궐기대회'가 열린다.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기후보호국 팀장〉

기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협동조합 운동

이홍규

올해는 유엔에서 정한 협동조합의 해이며, 협동조합 기본법이 년 말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래서 협동조합 운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협동조합은 동일한 이념과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유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결성된 사업조직을 말한다. 조합원이 주인이며, 이용자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업을 통해 조합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는 민주적 조직이다.

본격적인 협동조합 운동의 확산을 앞두고, 향후 설립되는 협동조합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확고한 이념과 목적이 있는 사람들의 조직체가 되어야 한다.

반세기 전 우리나라에 처음 설립된 협동조합은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 일방적으로 행정명령에 의해서 하향식으로 조직이 결성되었다. 그래서 협동조합에 대한 이념과 목표를 잘 알지 못한 채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단순한 이용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조합원들이 확고한 이념과 정신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참여해야 한다.

둘째,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고 운영하는 조직체가 되어야 한다.

기존의 협동조합은 특별법에 의해서, 조합원의 범위가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래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협동조합과, 도시지역 소비자 조합이 각각 별도로 설립되고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경계를 허물고, 생산자 농업인과 도시의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여,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교육지원, 복지환원 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협동조직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생산자 조합원은 안정된 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하고, 소비자 조합원은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다. 기존의 협동조합을 보완하여 계획생산 계획소비를 하는 상생조직으로,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일자리를 창출하고, 함께 나누는 사회적 공헌을 하는 조직체가 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고,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조합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주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농장 및 사업장에 조합원의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창출을 해야한다. 함께 참여하는 노동과 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이익은 조합원을 위한 귀농, 농업경영, 마케팅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회에 공헌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항은 가장 이상적인 협동조합의 표준모델이다. 신자유주의 거대자본에 위해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권익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스스로 협동조합 운동에 열정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우리의 식량주권이 위협받고, 농업과 농촌은 공산품 수출협상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교우위론이 지배하는 한심한 시대로 전락했다. 이제 도시지역의 소비자와 농촌의 생산자가 함께 모여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법률적 여건이 마련 되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들께 깊은 관심을 가지고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새로운 협동조합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농촌사랑운동본부 논설위원〉

커피광풍에 밀리는 전통차, 이미지 쇄신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전통차도 많은데 부끄럽게 '커피공화국'이라는 오명도 있다. 커피 마시는 게 부끄러운 일이거나 잘못은 아니지만 우선 커피는 100%수입산인데다가 수입에 따른 외화낭비, 그리고 우리 몸에도 그다지 좋은 음료는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커피 소비자에 해당하는 15세 이상 인구가 작년 1년간 마신 커피는 1인당 521잔이나 된다고 한다. 가히 전국민이 하루에 1.5잔 정도 마신 꼴이니 커피 광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 우리 전통차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어디서 어떤 전통차가 만들어지고 그걸 소비하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갈수록 초라해졌다.

이제 한국인은 인삼차나 옥수수차, 결명자차, 구기자차, 오미자차 없인 살아도 커피 없인 못 사는 처지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가. 우리가 커피를 이길 수 있는 전통차 하나 없는 나라는 분명 아닌데 문제는 국민들이 전통차가 아닌 커피만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전통차 하나 제대로 육성해서 국민들이 즐기게 하지 못한 채 국가적 자존심도 없는 나라로 전락했다면 이는 분명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하는 일이다. 더군다나 국토의 70%가 산이고, 4계절이 뚜렷해서 먹을거리와 차 재료가 지천인데 한낱 커피에 우리의 차 시장을 완전 뺏기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닌가.

무엇보다도 소비자인 국민들의 마인드부터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 커피는 누가 언제 먹어도 도시스럽고 세련되고 멋스러워 보이는 이미지를 풍긴다고들 생각한다. 실제 그런 분위기가 틀린다고 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예를 들어 맞선 장소에서 율무차, 결명자차, 오미자차를 시켰다고 하면 맞선 상대자는 그 차를 시킨 사람에게 "약간 촌스럽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그런 문화적 '허영심'은 없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그러니 전통차 업체와 국가가 함께 우리 전통차의 기호성, 문화적 감각을 만족시킬 마케팅을 펼치는 게 중요하다. 또한 전통차의 이름도 이런 도회적 이미지, 세련된 이미지를 함께 갖출 수 있게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권정예·순천시 가곡동

無等鼓

中日전쟁?

중·일 갈등이 심상치 않다. 일본의 센카쿠(尖閣 : 중국명 釣魚島 댜오위다오) 국유화 조치에 항의하며 중국 주요 도시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반일 시위가 과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1일 일본 정부의 센카쿠 국유화 발효 이후 중국 내 반일 시위 양상은 심각하다. 일부 시위대는 일본 기업과 백화점, 음식점을 공격하고 일제 차량을 부수는 등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다.

중·일간 불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00년을 거슬러 올라가 조선에서 벌어졌던 청일전쟁(1894~1895)이 양측의 직접적인 충돌이다. 당시 조선이 갑오농민전쟁을 진압하기 위해 청군을 불러들이자, 조선 지배권 유지에 위기의식을 느낀 일본군이 강제 진주했다가 전쟁이 터졌다. 왕조 말기 부패하고 무능했던 청은 일본에 무릎을 꿇고 만다.

이후 제국주의의 길을 걷게 된 일본은 중국 대륙을 짓밟는다. 일본은 청조의 마지막 황제 푸이(溥儀)를 내세워 만주 괴뢰국을 세우는가 하면, 남경 대학살을 자행해 중국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반일감정을 품게 한다.

특히 18일은 만주사변(滿洲事變)이 발발한 날. 일본 군부와 우익은 일찍부터 만주의 이권을 차지하려는 야욕이 있었다. 일본 관동군 참모 이타가키 세이시로 등이 앞장서 1931년 9월18일 류탸오거우(柳條溝)에서 스스로 만철 선로를 폭파하고 이를 중국 측 소행으로 몰아 군사행동에 돌입하며 대륙을 유린하기 시작한다. 중국인들은 이날을 '국치일'(國恥日)로 정하고 일본의 만행을 곱씹고 있다.

근현대사에서 중국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일방적인 피해자였다. 그러나 미국과 함께 G2로 성장한 중국이 더 이상 일본에 당하고만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만일 '중일전쟁'이 터진다면 100년 전 청일전쟁 당시 전쟁터를 제공하고 전화를 입었던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확률은 낮겠지만 중·일 갈등이 심상치는 않으니 말이다.

/박치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FAX 227-9500〉	〈FA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